

서 교육감 공약이행률 15.6% '순조'

공약관리위원회 이행률 심의 73개 사업 중 48개 이행완료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취임한 서 교육감의 73개 공약사업 평균 이행률이 12월 말 기준 1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 교육감이 2022년 공약 이행목표로 제시한 13.3%를 2.3% 포인트 넘어선 수치다.

서 교육감은 미래와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 등 6대 분야에 33개 주요정책, 73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안전 분야와 공동체 분야는 각각 5.7%와 5.2% 포인트 초과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이행 중이다.

교실혁명(이행률 19.0%), 전북미래학교 운영(18.0%), 예술놀이터 조성(20.0%),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8.0%), 독서·인문교육 강화(23.0%), 위(Wee)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33.0%), 학교안전관리 체계 구축(18.0%), 친환경 학교식단 확대(47.0%) 등



지난 7월 1일 취임한 서 교육감의 73개 공약사업 평균 이행률이 12월 말 기준 15.6%로 집계됐다고 알려졌다. 사진은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회의.

안전 5.7%·공동체 분야 5.2%p 초과 달성

73개 사업 중 48개 사업은 이행 완료됐다.

한편 제19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위원장 최홍규)는 이날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교육감 공

약이행 현황을 심의했다.

공약관리위원회는 서 교육감의 공약사업 실천 계획 평가, 공약 이행률 심의, 대안 제시 등을 하는 기구로, 지난 10월 19일 출범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과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날마다 변화하고 혁신하는 마음으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 초등 1학년 학습당 학생 수 '20명'

도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 학급편성 기준 확정

개발지구 등 여유 교실 부족 학교는 기준 적용 안돼

공립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명으로 낮아진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동 지역 27명, 읍 지역 28명, 면 지역 28명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지만, 1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낮게 잡았다. 이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실 밀집도 완화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해 행복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다만 개발지구 등 여유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급편성 지침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보냈다. 최원창 행정과장은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교육주체 의견 듣는다

도교육청, 토론회 열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사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김영준 인권옹호관이 '전북교육인권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옹호관은 △조례의 적용 범위 △조례에 담겨야 하는 내용 △인권과 교권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로 전북교육정책연구위원 오준영,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27일 전북도교육청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고종호, 전북교사노조 대변인 장세린, 전교조 사무국장 김영근 등이 참여해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학교 현장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취업 자신감·스킬 강화... 군산대, 모의취업 경진대회

3·4학년 재학생 대상

국립군산대학교가 취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고학년을 대상으로 제2회 KSNU 모의취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재학생 3~4학년에 대상의 입사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 면접경험을 높여 취업 자신감 고취 및 스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제2회 KSNU 모의취업 경진대회는 실제 채용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11월 28일부터 서류 접수를 하고, 1차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외부 전문 면접관을 초청하여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취업에 대한 의지·열정·역량과 노력과정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은 21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시상식은 지난 28일 개최됐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11명에게는 총상금 460만 원을 장학금으로 차등 지급했

고, 이외에도 열심히 노력한 참여자 10명을 추가 선발하여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

엄기욱 학생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취업 준비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KSNU 모의취업 경진대회를 통해 서류접수 및 면접경험과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제공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입 정시모집 29일부터 원서접수

'가' 군, 내년 1월 5~12일

'나' 군, 1월 13~20일

'다' 군, 1월 25~2월 1일

각 1회씩 총 3회 지원 가능

전문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 일정을 안내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9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로, 이 기간 중 3일 이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까지고, 등록은 2월 7~9일 3일간 이뤄진다. 정시 미등록 총원합계 통보마감은 2월 16일까지고, 정시 미등록 총원등록 마감은 2월 17일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7만 6,882명으로 전년도 8만 4,175명보다 7,493명 감소했다. 전체 모집인원의 22%에 달한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하는 모집인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정시 모집인원은 증가할 수 있다.

모집군별 면접, 실기 등의 전형기간은 △가군은 1월 5~12일, △나군은 1월 13~20일, △다군은 1월 25~2월 1일이다.

정시 지원은 각 군별 한 번씩 모두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편, 전문대학은 2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까지고, 등록은 2월 7~9일이다. 정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을 위해 2월 28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전문대는 대학 간 복수 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모집군이 변경된 대학을 반드시 확인하고, 영역별 반영비율, 반영 과목 수, 영역 반영 방법에 따른 본인 성적의 유효성을 철저히 분석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에서 이월된 인원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가·나' 군서 1273명 모집

29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가군 648명과 나군 624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가군에서는 일반학생 전형으로 스마트관학과를 비롯해 글로벌융합대학, 농생대(생명자원융합학과 제외), 사범대(체육교육과 제외), 상대, 생활대, 의대, 인문대, 자연대(스포츠과학과 제외), 치대에서 615명을 선발하고 지역외제 전형으로 의대 29명, 치대 5명 등 34명을 뽑는다.

또 나군에서는 간호대, 공대, 사화대, 수의대, 약대, 환경대에서 581명을 예

제를 통해 모집한다. 수능성적은 언어 및 수학영역은 표준점수를,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반영된다.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에서 예체능(실기) 반영 점수를 단순화했다. 또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 전형 신설에 따라 정시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이 신설됐다. 간호학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등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와 웨이이 어플리케이션(<http://www.uwayapply.com>)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또 예체능 계열의 경우 내년 1월 13일 실기고사가 진행된다.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전형이 1월 25일, 예체능 계열과 특별전형은 1월 26일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학교 무상우유 바우처 사업 2024년 전복서 전면 실시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농식품부 시범사업과 관련

"구입 편의성 증대·학교 업무 갈등 해소 등 장점으로

학교 찬성률 높으나 전주 등 도내 6개 시군 미참여"

"2024년에는 우유바우처 제도가 전라북도 전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에서 공문 이첩을 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부안군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로 공문이 이첩됐고, 짧은 시간 학부모 설문과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학교들의 높은 찬성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등 6개 시·군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미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복지 사업(교육청 예산 0%)을 수십년간 학교에 미뤄왔다. 사업 시행 결정을 '학생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 상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유바우처 제도는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과 낙인효과 방지, 선택권 확대, 구입 편의성 증대, 우유공급업체의 부정수급 차단, 무상우유 재판매 악용사례 방지, 버려지는 우유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작용 감소, 학교 업무 갈등 해소 등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찬성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365일 동안의 우유 구입 비용(월 1만 5000원)이 담긴 전자카드를 발급 농협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언제든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학교에서 등교일(250일)에 학기 중 백색우유, 방학 중 멸균유만 공급받던 것을 가공유와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품목을 확대했고, 공급 일수 확대(250일→465일) 및 한 번에 대량 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북평생교육

장학진흥원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6일 본교 집전실에서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전라북도형 시민대학 설립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평생 교육 학습자원이 원활히 순환되고, 도민의 역동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평생교육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6년 연속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기관 선정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전라권역 책임 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내년 5월 12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직무교육은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의 비전과 수요자 중심의 1차 보건의료 및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인공위성(간호학과) 교수가 지도한다.

교육과정은 기본이론(6주)·전문이론(4주)·임상실습(10주)·현직실습(6주) 등 총 26주로 구성됐다.

인공위성 교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1차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